

1. 정치경제학 비판에 부쳐

나는 부르조아 경제학의 체계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찰한다. 자본, 토지소유, 임노동 ; 국가, 대외무역, 세계시장. 앞의 세 부문을 통해서 나는 3대 계급의 경제적 생활조건들을 탐구한다. 근대부르조아 사회는 바로 이 3대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뒤의 세 부문은 한눈에 보아도 그 연관성이 분명해진다. 제1권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논해지는 바, 그 제1편은 다음 장(章)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상품, 제2장 화폐 또는 단순유통, 제3장 자본일반. 처음 두 개의 장이 이 분책(分冊)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지금 내 앞에는 온갖 재료가 각론(各論)들의 형식인 채로 있는데, 기실 이러한 각론들은 시기상의 오랜 간격을 두고 내 자신의 자기이해를 위해서 적어둔 것이지 간행을 목적으로 기록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앞서 말한 계획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제반 외적 상황 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일반론적인 서론을 하나 써두었던 게 있지만 나는 이것을 내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좀더 꼼꼼히 생각해보니, 이제부터 논증되어야 할 결과들을 미리 제시해준다는 것이 도리어 방해가 될 듯 싶기 때문이고, 도대체가 나의 입장을 따라가고자 하는 독자는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올라갈 각오

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신, 내 자신의 정치-경제학의 연구 경로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약간 언급해두는 것은 적절하리라 여겨진다.

내 전공분야는 법학이었으나 나는 이 학문을 단지 철학과 역사에 인접한 부차적인 학문으로서만 배웠을 뿐이다. 『라인신문』(“Rheinischen Zeitung”)의 편집자로 있을 당시인 1842년과 1843년 사이에 비로소 나는 이른바 물질적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곤혹스러움을 맛보았다. 산림도벌 및 토지 소유분할에 관한 라인주 의회의 심의들, 당시 라인주 지사였던 폰·샤페르 Herr Von Schaper씨가 모제르 농민의 상황에 관하여 『라인신문』을 상대로 일으킨 공개논쟁, 끝으로 자유무역과 보호관세에 관한 토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경제문제에 관여할 최초의 기회를 주었다. 한편 당시는 ‘보다 전진한다’고 하는 선의(善意)가 사실적 지식보다 훨씬 드셨던 시기였던 만큼, 프랑스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한, 미진하나마 철학적으로 물들여진 반향이 『라인신문』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어설픈 태도에 나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알게마이네 아우구스부르거 짜이퉁 Allgemeine Augsburger Zeitung』과의 한 논쟁에서 종래의 나의 연구로는 프랑스에서 일고 있는 추세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래서 나는, 이를테면 필봉을 완화시킴으로써 『라인신문』에 내려진 사형선고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던 『라인신문』 경영자들의 착오를 오히려 기쁘게 이용하여, 공적인 무대에서 서재로 물러서기로 했던 것이다.

그당시 나를 엄습했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착수한 첫 작업은 헤겔 법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이었는데, 이 작업의 서론은 1844년에 파리에서 출판된 『독불연감 Deutsch-Französischen Jahrbücher』에 게재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온갖 법률관계 및 국가형태란 것은 그것들 자체로부터도 또는 이른바 인간정신의 일반적인 발전에 의해서도 이해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것들은 물질적 생활관계들에 뿌리하여 있는 것이어서, 이들의 생활관계의 총체는 헤겔

의 18세기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선례에 따라 ‘시민사회’ *bürgerliche Gesellschaft*란 이름 아래 총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또한 이 시민사회의 해부는 정치경제학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연구를 나는 파리에서 시작했지만 기조 M. Guizot 씨의 추방령에 따라 브뤼셀로 이주함으로써 거기에서 보다 깊이 연구를 계속했다. 내가 도달한 일반적 결론, 그리고 일단 도달한 이상 나 자신의 연구에 계속해서 지도적 실마리로 쓰인 일반적 결론은 간단히 말해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와는 독립된 특정의 제관계 속에 들어간다.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제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간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이 실제적 기초인 바, 이 기초 위에 하나의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또한 이 기초에 대응하여 일정한 제사회의식의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제력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를 경우, 이때의 생산제력은 기존의 생산제관계 및 그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 — 이것들은 다름아닌 생산제력 내부에서 이제까지 운동해온 것이지만 — 와 모순되기에 이른다. 생산력의 발전형태들로부터 이러한 생산관계는 생산을 구속하는 질곡으로 변한다. 이리하여 하나의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다소간 급격하게 변혁된다. 이러한 변혁들을 고찰할 때 우리는 언제나, (i) 자연과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확인되어야 하는 경제적 생산조건들의 물질적 변화와 (ii) 법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또는 철학적 형태, 즉 인간이 이러한 대립을 의식하게 되는 터전이자 또한 싸움으로 이 대립을 관철해나가는 곳이기도 한 이데올로기적 형태들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개인에 관한 여타 사람들의 의견은 그 개인자신이 자

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내용 여하에 그대로 의거하고 있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변혁시기를 그 시기 자체의 의식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의식은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 곧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현존하는 갈등으로부터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사회구성체도 모든 생산력이 그 안에서 발전할 여지가 있는 한, 결코 발전의 완료 이전에 멸망하지 않는다. 또한 보다 높은 새로운 생산관계는, 이것의 물질적 존재조건들이 구사회의 태내에서 성숙하기 이전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자기에게 제기한다. 왜냐하면 좀더 자세히 고찰해보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거나 적어도 그 생성과정에 있을 경우에만 문제 그 자체가 등장하는 것을 항상 알게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말해서 우리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진보에 따른 여러 단계를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및 근대부르조아적 생산양식들로 특징지워볼 수 있다. 부르조아적 생산관계들은 사회적 생산과정의 최종적인 적대적 형태인 바, 여기서 적대적이라 함은 개인적 적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조건들에서 발생하는 적대적 형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부르조아 사회의 태내에서 자기발전하는 생산체력은 동시에 이 적대의 해결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사회구성체는 인간사회의 전사적(前史的) 단계를 끝맺는 장을 이루고 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나는 경제학적 제법주의 비판을 위한 그의 천재적인 논문이 (『독불연감』에) 발표된 이후 서신을 통해 사상적 교류를 계속해왔는데 그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그의 『영국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실태』를 참조하라) 나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1845년 봄에 엥겔스가 브뤼셀에 정착함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우리들의 지난날의 철학적 양심을 청산하기 위하여 독일철학의 이데올로기적 견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의 대립적 입장을 공동으로 집필하기로 결의했다. 이 계획은 헤겔 이후의 철학을 비판하는 형태로 실행되었다. (헤겔

이후의 포이에르바하, 브루노 바우어 등을 비판한 저서인 『독일 이데올로기』를 말함—역자). 두 권의 두꺼운 8절판으로 된 초고는 오래 전에 베스트팔렌에 있는 출판사에 맡겼었으나, 그 후 우리는 상황이 달라져서 출판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주요목적—자기 이해—은 달성하고 있었으므로, 아낌없이 원고를 쥐들이 삼아먹는 데 맡겨 두었다. 그 반면에 우리들 자신이 당시 우리의 견해를 대중에게 각 방면에 걸쳐 발표한 산발적인 연구물로는, 엥겔스와 내가 공동집필한 『공산당 선언』과 내 자신이 출판한 『자유무역론』(1848년 1월에 브뤼셀의 민주주의협회에서 행한 자유무역에 관한 강연. 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 Bd. 4, S. 444~458 참조—역자) 만을 들 수 있겠다. 우리들의 견해 가운데 중요한 요점들은 내가 푸르동에 반대하여 쓴 1847년에 간행된 저서 『철학의 빈곤』에서 비록 논쟁적인 것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과학적인 성격을 띠면서 시사되었다. 『임노동』에 관하여 독일어로 쓴 하나의 논문은 내가 이 제목으로 브뤼셀의 독일 노동자협회에서 행한 강연을 정리한 것인데, 그것은 2월혁명 및 이에 따른 나의 벨기에에서의 강제추방에 의하여 인쇄가 중단되었다.

1848년과 1849년 사이의 『신라인신문』(Neuen Rheinischen Zeitung)의 발행과,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나의 경제학 연구를 중단시켜 1850년에야 겨우 나는 런던에서 경제학 연구에 다시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대영박물관에 비치된 정치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 부르조아사회의 고찰에 있어 런던이 제공하는 유리한 입지점, 끝으로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금의 발견과 함께 부르조아사회가 진입할 것같이 보였던 새로운 발전양상 등으로 해서 나는 순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과 아울러, 새로운 자료를 통해 철저히 비판적으로 연구해낼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외견상으로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 주제들로 이끌 경유가 있는데, 사실 나는 단기 혹은 장기의 시간에 걸쳐 이들 주제에도 관여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의 시간

이란 것도, 생계비를 벌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삭감되었다. 제1급의 영미(英美)신문인 『뉴욕 트리뷴 New-York Tribune』지에 지금까지 8년동안 기고해 왔던 것이—이는 방법이 예외적일 뿐 본격적인 신문통신에 종사하는 것이므로—나로 하여금 연구에 대한 극도의 분산을 강요했다. 하지만 영국과 대륙에서 일어난 놀랄만한 경제적 사건들에 관한 기사나 나의 기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정치경제학이라는 본래의 학문영역을 벗어나는 실제적인 세부사항에도 정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치경제학 영역에서의 나 자신의 연구와 견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되건 간에, 또 그것이 얼마나 지배계급의 이기적인 편견과 일치하지 않건 간에, 나의 연구의 진행에 대해 이상과 같은 개요를 소개하는 의도는 오로지 이러한 연구가 장구한 세월에 걸친 양심적인 탐구의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지옥에의 입구와 마찬가지로, 학문에의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틀림없이 걸려져 있는 것이다.

여기선 일체의 머뭇거림을 버리라,
 그 어떤 주저함도 여기 죽어 마땅하다.*
 (단테, 『신곡』)

1859년 1월, 런던

칼 마르크스

* 원문은, Qui si convien lasciare ogni sospetto/Ogni viltà convien che qui sia morta.—역자.

사에 다름아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이성 속에서의 이념들의 연속”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이념의 운동에 의해 세계를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으나, 그는 모든 사물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이념들을 절대적 방법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재건하고 분류했을 따름이다.

두번째 고찰

경제적 범주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추상시킨 이론적 표현일 뿐이다. 우직한 철학자처럼 사물을 거꾸로 파악했던 프루동은 “인류의 비인격적 이성(unpersönlichen Vernunft der Menschheit)”의 품 속에 잠들어 있는 이러한 원칙들과 범주들의 육화만을 현실적 관계 속에서 보고 있을 뿐이다.

경제학자 프루동은 인간이 특정한 생산관계하에서 옷감, 린넨, 또는 비단과 같은 재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특정한 생산관계 역시 린넨이나 옷감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회관계는 생산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생산력을 취득하면서 인간은 생산양식을 변화시킨다. 생산양식을 변화시키고 생계유지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모든 사회적 제 관계를 변화시킨다. 풍력제분기가 봉건 영주가 있는 사회를 낳았고, 증기제분기는 산업 자본가가 존재하는 사회를 탄생시켰다.

물질적 생산성에 따라 사회적 제관계를 확립한 바로 이 인간이 또한 사회적 제관계에 상응하는 원칙, 이념, 범주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념, 범주는 그것들이 표현하는 관계만큼이나 영속적이지 못하다. 그것들은 역사적이고 과도적인 산물일 따름이다. 생산력의 성장, 사회관계의 파괴, 이념의 형성이라는 지속적인 운동이 존재한다. 불변하는 유일한 것은 운동의 추상, 즉 “불사(不死)의 사(死)(*mors immortalis*)”^{*24)} 뿐이다.